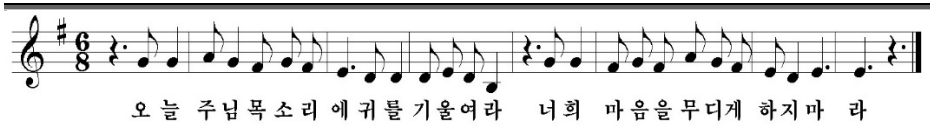
📖 전례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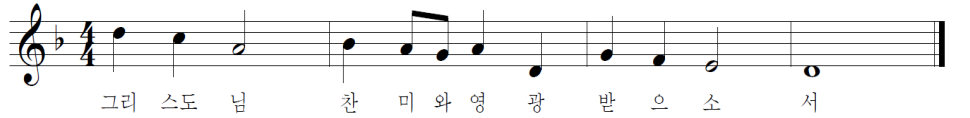
	합동미사	
	3월 12일	3월 19일
해설	이혜진	상진아
독서	천영주	김준숙
복사	김영욱, 김준오	현종한, 정아인
선창	성가대	성가대
반주	박승희	박승희
평일미사	805 회	
묵주기도	53686 단	

♬ 화답송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 복음 환호송



본당 소식

1. 사순 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십자가의 길" 있습니다.

2. 부활준비 판공 성사 안내
일시 : 3월 22일(수), 29일(수) 오후 5시 - 8시까지
장소 : 성당 내 고해소
매주 미사 전에 고해 성사가 있지만 편안하게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사순 기간 내에 상설 고해소 운영합니다.

3. 사순 특강 - 뉴 멕시코 피정센터의 이 소피아 수녀님
일시 : (1차) 3월 25일(토) 오후 7시-8시 30분
(2차) 3월 26일(주일) 미사 강론 대신
내용 : 가장 소외된 이들(원주민)에 대한 사목

4. 성당 대청소 안내
3월 26일 미사 후 각 구역별로 실시

5. "노래로 드리는 기도"안내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성당에서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마음과 소리를 모아 정성껏 부르는 노래(성가)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성가를 사랑하는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월 성가 (116 주예수 바라보라, 120 수난의 예수, 121 한많은 슬픔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6. 주일학교 소식
주일학교 스케줄 (Sunday School schedule)

주일날자 (Date)	스케줄 (Schedule)	Lector2	Altar2
3/12/2023	십자가의 길		Juno Kim
3/19/2023	판공성사		Ayn Chung
3/26/2023			Subin Yoo

*주일학교 스케줄은 https://sites.google.com/site/clesakkccss/ 에 가시면 언제든지 보실수 있습니다. (The link to Sunday School schedule)

교리 상식 – 회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신자가 많지 않던 시절, 사제가 신자들 신앙생활의 공과 과를 판단하기 위해 교리, 신앙, 고해성사 등을 점검하는 것이 '판공성사' 였는데, 오늘날엔 부활 대축일과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모든 신자가 고해성사를 하도록 마련한 시기를 판공성사라 합니다.
교회법상 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이상 고해성사와 성체를 영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고해성사란 세례 이후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성사입니다. 회개의 성사, 화해의 성사라 합니다. 이전에 '고백성사'라 했는데, 죄 고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었고, 지금은 참회와 화해의 의미를 강조하기에 고해성사라 합니다.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2-23) 예수님은 당신의 죄 용서 권한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사도들에게 위임된 권한은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그의 협력자인 사제들에게 계승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게 됩니다. 죄 용서는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제는 하느님과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 용서를 강조하신 이유는 죄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란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져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죄는 하느님을 외면하고, 하느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반대말은 '회개' 입니다. 회개란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는 것,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에 빠졌을 때 인간은 하느님을 등지고, 멀어지게 되기에 은총을 주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죄를 씻고, 회개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교육선교위원회

지난주의 정성✞

[주일 헌금]		
교중미사(2/19)	$	1,032.-
교중미사(2/26)	$	1,086.-
교중미사(3/5)	$	789.-
특별헌금	$	1,642.-
[교 무 금]	$	1,400,-
총계	$	5,949.-

✚ 사귐, 섬김, 나눔의 공동체 ✚

(가해) 사순 제3주일
(2023년 3월 12일)

미사		성직자			교리 및 모임		
평일	목 (19:30)	주임 신부	정성훈 모세	93moses@gmail.com Cell: 216-801-0747	제대회 기도회	10:30	수요일
					교사회 기도회	19:00	수요일
주일	10:00 (합동)				남성 기도회	18:00	화요일
					캔톤 기도회	20:30	수요일
캔톤	19:30 셋째 토요일	종신 부제	신철야 안드레아	cjshinmd@gmail.com Cell: 440-823-3797	에파타 모임	10:30	금요일
					주일학교	11:30	주일

클리블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주보위원	이승엽 유스티노	seungyup.lee.seungyup@gmail.com	216-308-3870

본당 주소 : 2310 West 14th Street, Cleveland, OH 44113
☎ : 216-861-4630 홈페이지 : www.clekcc.org 이메일: office@clekcc.org